

OG2) 일본에 있어서 허브의 이용현황과 전망

조현주*¹, 이향림², 조태동²

*¹日本 千葉大學 自然科學科, ²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 론

최근 선진국에서는 허브를 환경친화적인 식물로 선정하고, 오일, 식품, 포프리, 아로마 테라피, 허브가든 등 미용과 건강, 식생활과 대체의학 또는 장식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허브가든, 허브페스티벌 등 제 3차 산업에서 고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것을 모델로서 일본허브샵에서도 20세기 후반 허브와 아로마 테라피를 도입하여 건강과 미용 및 대체의학에 응용하고 있으며 허브가든을 조성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의 소재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과 미의 추구라는 질 높은 생활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허브식물은, 지금까지의 화훼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서, 심리적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허브는 방향 및 약용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시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허브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의 전망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허브도입과 이용현황을 시대적으로 파악하였고 허브가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통하여 개원, 운영주체, 면적 등 12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앙케이트는 2005년 7월 일본의 전국 허브가든 25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여기에서 유효한 앙케이트 수는 13개소로서 이를 근거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본의 자생허브이용 역사

예로부터 설이 되면 소나무(적송)가지를 이용하여 가도마쓰를 만들거나 계피나무(Cinnamonus cassia Blume)의 수피, 산초의 열매, 미나리의 뿌리 등을 이용하여 연명장수를 기원하는 차를 마시는 풍속이 있었고, 냉이, 떡쑥(Gnaphalium affine), 개보리뽕이(Lapsana apogonoides), 순무, 무우 등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 아이들의 장수를 비는 축제인 히나마쓰리에서는 쑥으로 만든 풀떡을 먹었으며, 단오에는 궁중에서 창포를 넣은 술을 마시는 풍속, 동지에는 호박을 먹고, 유자탕에서 목욕을 하는 풍속과 일반가정에서도 입욕제로 이용하던 허브에는 솔잎, 쑥, 창포, 어성초, 복숭아 등이 있었다.

시대별로 보면, 조몬시대(1만년전) 아키다현에서 딱총나무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i*Hara), 머루(*Vitis*), 딸기류(*Fragaria* L.) 등이 발굴되었다. 헤이안시대(794~1185년) 초기에는 고추냉이, 양하, 산초, 부추, 생강, 겨자, 마늘, 자소 등이 향신료로서 이용되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파악되었다.

일본에서 서양허브가 전래된 것은 전국시대(全國時代:1467~1573년)로, 1568년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시가현의 이부키산에 처음으로 서양허브가든이 조성되었으며, 이 때 유럽원산의 약 3000종의 허브가 이식되었다.

그 후 메이지시대(1868~1912년)에 구미와 중국(청)에서 많은 작물, 과수, 채소 등이 도입과 함께 펜넬, 마조람, 타임, 바질 등 다수의 허브도 도입 되었다.

이후 원예시험장(한국의 농촌지도소와 유사함), 대학, 민간에서 넓게 도입되어 재배되었고, 또 약초관계에서도 각종 허브의 도입과 시작(試作)이 행해져 왔지만, 주로 파슬리, 크레송, 고추냉이 등의 일부 허브만이 보급된 이유는 쌀과 사시미(생선초밥)라는 일본특유의 주식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2. 일본의 허브산업의 도입과 추이

3.2.1 도입현황

1) 태동기(1940년-1960년)

북해도(北海道)에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라벤더를 도입하였고, 1960년대부터 라벤더를 이용한 허브산업이 시작되었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크게 시대적으로 분류해 보면,

1969년, 독일에서 허브티가 동경(東京)을 중심으로 일본에 처음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나 당시에는 플라워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1975년, 동경의 니혼바시, 다카시마야에서 처음으로 허브페어라고 이름붙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중매체에서 플라워티로서 알려졌던 허브티를 처음으로 허브티로 부르게 되었다.

2) 도입기(1980년대)

허브의 효과는 물론이고 꽃과 향기를 이용한 사탕류, 샴푸, 허브비니거, 허브염색, 포푸리 등을 생산하였고 허브를 재배하여 각종 허브의 종자와 모목이 일본국내의 종묘점에서 판매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종자의 입수가 용이하게 되어 각 가정에서 허브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다.

3) 성장기(1990년대)

1991년 허브를 테마로 한 가든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993년 허브 전문월간지가 창간되었고, 1999년에 이르러 전국에 허브샬 224개소, 허브가든 33개소, 허브통신판매18개소, 전문허브스쿨 19개소 등이 만들어지거나 설립되었다.

4) 2000년 이후 현재

허브가든, 샬, 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과 더불어 허브를 테마로 한 국내외여행, 이벤트, 잡지 및 관련서적 등이 대량 출판 되고 있다.

허브제품으로는 수공예품, 가공제품 등 천여가지가 생산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는 허브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3.3. 허브가든의 현황 및 특징

3.3.1. 일본의 허브가든

2006년 현재 일본에는 공식적인 허브가든이 총 185개소 있으며 특히 북해도와 나가노현의 경우 허브가든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메이지시대 이후부터 파슬리와 크레송, 고추냉이 등을 가공원료로서 재배한 농원들이 현재에도 남아있고, 또 허브가든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3.2. 허브가든의 특징과 운영실태

일본에서의 허브가든은 유럽과는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브이벤트를 직접주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야마나시현의 가와구찌에서는 20여일의 라벤더 이벤트를 개최하여 약 400억원의 총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허브가든형태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허브가든의 특징

(1) 가든형(60%)

조성 당시부터 대부분 허브가든 형태이며, 유럽의 가든형을 모방하고 있고, 주로 서양허브를 중심으로 식재하는 형태이다.

(2) 공원형(26.4%)

식물을 주제로 한 리조트 또는 시립공원 등 내에 허브를 함께 식재하는 형태이다.

또는 공원의 한켠에 허브가든을 조성하고 있는 형태이다.

(3) 식물원형(13.6%)

식물원 안에 허브가든을 조성하거나 혹은 약용식물원, 약용식물센터 등을 조성하는 형태이다.

3.4. 앙케이트를 통한 허브가든 현황

허브가든의 개원은 대부분 1986년대 이후에서 1997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아 일본에서는 이때 허브가든의 전성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개소의 허브가든에서 민간경영과 지방자치단체(6개소)의 직접경영에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있고, 면적은 적게는 1ha부터 크게는 30ha까지 보여지는데 20ha이상 큰 면적의 허브가든은 대부분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자체 소유 토지를 활용한 예로써 보여진다.

입장료는 각 허브가든의 실정에 따라 유무가 정해져 있었고 비싼곳은 기후현에서 1100엔 까지 받고 있었다.

허브를 식재한 종류를 보면 나가노현은 라벤더를 중심으로 카모마일과 2종류만을 중점 식재하여 특성화 시킨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200종류를 전후로 식재한 곳이 과반수를 넘었다. 회원제도를 운영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으로 접근해야 하는 곳도 2개소가 있었다.

허브샵과 카페 등의 시설은 대부분 설치하였는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한편은 수익도 모를 것으로 보여진다. 5년간의 매출에서 증가한 곳은 3개소 밖에 없었는데 모두 민간 운영 였고 지자체에서는 모두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1개소만이 동일하다고 답하여 향후 허브가든의 설치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문자 역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였는데 이곳의 특징은 입장료 무료와 이벤트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허브가든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적인 대응도 목적이지만 무엇보다 수익창출이 도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벤트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요 약

일본에서는 북해도에서 1940년대부터 라벤더재배를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 포푸리 중심의 허브산업이 전개하였다. 본토에서는 1980년대에 허브관련상품이 개발되어, 1990년 이후 허브가든, 허브샵, 전문허브스쿨, 국내외여행, 잡지서적 등이 대량으로 출현, 출판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유럽형가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60%), 공원의 일부에 허브를 식재한형(26.4%)과 식물원내에서의 약용식물원형(13.6%)이 보여졌다. 유럽과 다른 특징으로서는 지방자치체가 허브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학습원을 조성하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서양허브이용은 198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도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허브가든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의 욕구에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3개소 허브가든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이익이 증가한 곳은 겨우 3개소에 불과했고 9개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상품의 대부분은 수입품이며, 허브 역시 서양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허브의 재배기술의 확립과 동시에 일본 고유허브의 재평가와 더불어 유통, 마케팅 등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大貫 茂, 1998, 허브園ガイド、東日本編、山と溪谷社、pp. 1-183
 山と溪谷社出版部, 1999, 허브園ガイド、西日本編、山と溪谷社、pp. 1-175
 安藤 博 他11人, 1996, 허브新來の香草たち、朝日新聞社、pp. 134-135
 村上 志緒, 2002, 日本の허브事典、東京出版社 pp. 3-28
 佐竹義輔 他 4 人, 1981, 日本의 향기 코로나 북스編集部、平凡社 pp. 1-123
 조태동, 199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허브정책수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학회지, 제3권 2호, pp.62-70
 정정섭, 조태동, 1998, 영국의 Sissinghurst castle garden이 주는 지역활성화 효과, 농촌계획 학회지, 제4권 1호, pp. 56-62
 Tony Lord, 1995, Gardening At Sissinghurst, The National Trust.
 Bremness Lesley, 1989, The Complete Book of Herbs, America, Viking Studio Books.
 Holt's Geraldene, 1993, Complete Book of Herbs, America, Conran Octopus
 홍영록, 조태동, 1999, 허브를 이용한 일본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지,

제5권 1호, pp. 12-19

Lois Vickers, 1991, The Scented Lavender Book, EBURY PRESS.

조태동, 김보경, 윤경은, 1996, 허브원을 통한 자연환경보전 및 농촌지역활성화 효과, 농촌계획학회지, 제2권 1호, pp. 49-56

조태동, 2003, An Analysis of the herbal Introduction Process and Trends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J.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제12권 2호, pp. 171~177

조태동, 2001, 허브가든의 조성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 제5권 2호, pp. 81~94

Deni Bown(1995). ENCYCLOPEDIA OF HERBS & THEIR USES,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0-411

조태동, 1998, Herb허브, 대원사

조태동, 1998, Dr.cho's 허브가든, 전원문화사

조태동, 송진희, 2002, 허브&아로마라이프, 대원사

조태동, 2003, 향기로운 삶을 만드는 아로마테라피스트, 크라운출판사

조태동, 2005, 허브이야기, 살림출판사

조태동, 손성희 2003, 여성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대원사

조태동, 2006, 한국의 허브, 대원사